

보급자리 마련 '광산농악' 제2 전성기 기틀 마련했다

90년대 무형문화제 지정 이후 20여년간 홀대... 계승자도 없어 하남동에 21억 투입 전수교육관 개관... 연습실·편의시설 갖춰

광주 광산구 마북동을 중심으로 겨우 명맥만 이어오던 '광산농악'이 최근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하면서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역 전통문화인 '광산농악'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달 29일 하남동 가야재 옆 3438㎡ 부지에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을 개관했다. 사업비 21억원 들어 지상 2층 규모로 개관한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은 대강당 1개소와 연습실 2개소 및 관련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이번 '광산농악전수교육관'은 개관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광산농악은 1990년대 무형문화제로 지정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으나, 20여년전부터 최근까지 극심한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산농악'은 예로부터 광산구에 성행했던 마북동 판굿농악, 칠석동 고싸움놀이농악, 소촌동 당산농악, 산월동 풍장농악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광산구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광복 이후까지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다. 다행히 80년대 후반부터 뜻있는 인사들에 의해 재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우도농악 계승자들을 초청해 지역농악 복원에 힘을 쏟은 끝에, 1988년 전주에서 열린 제 2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공로상을 받는 영예도 안았다. 첫 결실로 '광산농악'은 1990년 제

주, 1992년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농악부문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도 냈다.

여기에 광주시 문화재전문위원과 시민의 노력이 더해져 광주시가 1992년 무형문화제 8호로 지정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마땅히 계승자마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침체기를 맞게된 '광산농악'은 홀대받는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무형문화제로 지정됐지만 변변한 연습장마저 없다 보니 예능 보유자들은 서창다리 밑과 장덕동 근대하숙 등 다른 무형문화제 수련관을 떠돌며 연습을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같은 어려움을 접한 광산구는 2016년 (사)광산농악보존회와 함께 '문화재청 무형문화제 전수교육관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이번 전수교육관을 개관할 수 있게 됐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2020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주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사례 선정 쾌거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대강당에서 열린 '2020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광주, 미래성장을 견인할 인사혁신 가속화'를 주제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탄력적 인사운영 ▲상수도 전문성 강화 인사혁신 단행 ▲격무기피업무 총량제 도입 등 각종 인사제도의 내실 있는 혁신 ▲선호부서 일몰제 본격 시행 ▲'위드코로나' 수요자 맞춤형 직원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인사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코로나19라는 임중중 상황 속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탄력적 인력운영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인사혁신 추진과정, 코로나 대응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도 감소를 위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 마련 등이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는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전국에 공유·확산함으로써 지방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인사관리 혁신분야와 성과관리 및 전문성 제고분야, 일과 가정의 양립 공직문화 조성 및 유연근무 등 일하는 방식 개선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대회에는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했다.

김중화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인사혁신 시책 발굴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장관상

지역도서관들과 협력업무 수행해 독서문화 확산 기여

'상호대출반납시스템' 구축 등 시민 독서 편의 증진도

광주시립도서관이 '2020년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는 공공도서관 협력업무 유공 표창은 도서관 간 협력업무 수행을 통해 도서관 발전과 이용자 서비스 향상에 공헌한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광주시립도서관은 2010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이래 광주지역 공공도서관은 물론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등과 협력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광주지역 공공도서관 상호대출반납시스템 구축", 가까운 동네 서점에서 신간도서를 바로 빌려

볼 수 있는 '희망도서바로대출서비스' 등 시민의 독서 편의를 증진하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지역 대표 독서축제인 '도서관 문화마당',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 도서관학교' 등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경화 시립도서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삼호 광산구청장, K-방역 선도 지역업체 응원

자동차 선별진료소 제작업체

이솔테크 방문...직원 격려도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K-방역을 선도하는 지역 우수기업을 방문해 격려하고, '선 지역 사용 후 우수성 전국 홍보' 방식의 제품 판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최근 방문한 자동차 선별진료소 제작업체 '이솔테크'는 에너지 절감형 주가·여가 하우스 제작 기술로 지난해를 방호복이 필요 없는 선별진료소를 선보여 주목받고 있다.

특히 광산구보건소는 이 제품의 제작 과정에 방역 경험을 전수하고, 다양한 지역기업·기관이 협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광산구는 접단에 있는 이솔테크가 첫 생산한 자동차 선별진료소를 방역 일선에 투입한 뒤 안전성과 우수성을 전국에 알렸다.

광산구가 먼저 사용하자 전국 8개 지자체도 이솔테크의 선별진료소를 신뢰하고, 방역 현장에 투입했다. 전국 15개 의료기관도 이 선별진료소의



김삼호(왼쪽에서 세번째) 광산구청장이 최근 지역 우수 K-방역기업인 이솔테크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개량 형인 '호흡기 클리닉'을 주문했으며, 국방부도 선별진료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이솔테크의 선별진료소처럼 광산구가 먼저 지역기업 제품과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

고, 전국에 널리 알려내는 제품 판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면서 "지역 K-방역 기업들이 많은 주문에 차질 없는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장애인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효과 특출

광주시 광산구가 공영주차장 20곳 62면에 구축한 '원스톱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시스템'이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 '0' 건이라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9월 구축을 시작한 지난 6월부터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10월부터 광산구가 본격 운영하고 있는 해당 시스템은 장애인 주차권 확보와 주민 간 주차 갈등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차구역 면 센서, 차량번호 인식·판독 장치, 행정 전산망 연결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로

구성돼있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중간에는 음성, 야간에는 LED문자 전광판으로 과태료 부과를 경고한다.

광산구는 10월 한 달간 달간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20일까지 연장

광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가 해당된다.

긴급생계지원금은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 11-12월 중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차례 현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단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복지제도가 소상공인새희망자금과 같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득감소 25% 이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의 소득감소자 중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을 고려해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지난 9일 기준으로 관내 지원금 대상가구 1만 6000여 가구 중 50%에 해당되는 8000여 가구가 신청을 완료했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긴급생계지원금이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사이트,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